

진솔함으로 이민 1세대 할머니 울린 영화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정이삭 감독 '미나리'

1980년대 팝송을 흥얼거리던 일반인들의 로망이었던 아메리칸 드림... 이 무렵 언니네 가족이 1년간 미국에서 살다 돌아왔다. 귀국하던 날은 온 가족이 꽃다발을 들고 김포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언니를 통해 듣는 1980년대 미국 이야기, 특히 드레스 코드가 있는 파티 이야기는 꿈결 같기도 했다. 그런데 의아한 이야기도 있었다.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굽는 서울대 성악과 출신 한인 여성과 가까이 지냈다. "서울대 출신이 왜 햄버거를 팔아?" "서울대 나왔으니 미국으로 시집을 갔지." "...???"



정이삭 감독 '미나리'.

판씨네마추 제공

편 직업이 멀쩡해도 아내는 봉제공장에서 재단을 하는 등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바쁘지 않은 노인들은 실버타운이나 백화점 로비에 앉아 바쁜 자식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시간을 죽이며 살고 있었다. 이민자들의 너나없이 고단한 삶... 이 모든 현실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던 것이다. 그래서 영화 '미나리'의 스토리는 폐부에 속속 스며들었다. 그래도 한인 이민자들은 자녀교육 열의가 남달라서 자녀들 중에 하버드를 위시한 아이비 리그 대학 출신자들을 배출하는 일이 꽤 많은 편이다. 이방인으로서 갖게 되는 팽창된 압박감이 폭죽 터지듯 터지며 보람으로 자리하는 순간일 게다. 그들의 강인한 디아스포라의 정착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 디아스포라의 에너지를 넘어선 생활력, 인내력, 교육열, 적응력 등등 뿌리 깊은 한국인의 DNA가 기반이 되어주었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은 영화 '미나리'가 제기였다.

병아리 감별사로 미국 이민생활 10년을 보낸 제이콥(배우 스티브 연)은 가족을 데리고 아칸소 주 한 농장터로 이사하며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

그곳에는 트레일러 하우스만 달랑 있을 뿐이다. 아내 모니카(배우 한예리)는 "우리가 약속했던 건이런 게 아니잖아"라며 몹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다. 어린 아들 데이비드(배우 앨런)은 "집에 바퀴가 달렸어" 하며 신기해 한다. 토네이도 경보가 일던 날, 비바람에 집이 날아갈까 불안에 떨어야 하는 가족들. 앤(배우 노엘 케이트 조)은 부모의 다툼이 천둥소리보다 더 무섭지만 동생을 다독이는 속 깊은 딸이 되어가고 있다. 제이콥은 아내를 달래기 위해 한국의 장모님을 모셔오기로 합의한다. 그렇게 척박한 미국에서 뿌리 내릴 땅을 찾던 고단한 이 가족에게 할머니 니순자(배우 윤여정)가 찾아온다.

한국에서 고춧가루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손자를 위한 한약재까지 바리바리 싸온 어머니를 보는 일은 척박한 이민생활에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니카의 눈이 말해준다. 데이비드는 입안에서 밤을 꺼내주고 한약을 먹이는 할머니가 낯설고 싫지만, 병으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는 자신의 두려움을 할머니는 냅다 떨 귀준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가져온 화투놀이를 가르

쳐 주고 미나리 씨앗을 숲속 개울가에 파종하여 아이들에게 미나리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일깨워준다. "미나리는 어디서든 터 좋은 곳에 심으면 알아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지. 김치에도 넣고 어떤 요리에도 어울리고 향도 좋아. 몸에도 좋으니 '원더풀'이야..."

데이비드와 할머니는 함께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 원더풀~!" 제이콥의 농장 일은 순조롭지가 않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을 돌보던 순자에게 뇌졸중이 발생한다. 데이비드의 병원 체류 날, 뜻밖에도 아이의 건강이 호전돼가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거래처도 뚫는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다. 그날 순자는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쓰레기를 태우다 그만 저장창고를 태우고 만다. 좌절감과 허탈함으로 순자는 발걸음을 돌리고 그 길을 아이들이 막아선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이 영화는 미국 이민자 가정의 겪어왔을지언정 어려움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아칸소주 농장에서 자란 감독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했기에 더욱 리얼하게 절박한 현실을 그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LA 한 한인교회에서 영화 '미나리'의 사전상영을 했을 적에, 이민 1세대인 할머니들이 울음바다를 터트리 끝까지 볼 수 없었을 정도였다.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이 영화가 갖는 진솔함의 힘이다.

코리안 아메리칸은 적응과 배척 사이에서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때로 이방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도 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서로가 얽혀 잘 자라는 한국의 미나리처럼 뿌리 깊은 한국인의 정서로써 함께 서로를 부둥켜안을 줄 아는 존재들이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만리장성



취재수첩
한규빈
취재2부 기자
gyubin.han@jnilbo.com

만리장성(萬里長城).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흉노족과 몽골족 등 북방 유목 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운 성벽이다. 춘추전국시대에 소국들이 각기 장성 건설을 시작해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인 진나라 때 이들을 연결해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됐다. 실제 성벽의 길이는 무려 6352km에 이르는데 중국에서는 장성으로 부르지만 영어로는 'Long Wall'이 아닌 'Great Wall'이라는 호칭을 써 엄청난 규모와 위용을 가능케한다.

국내에서는 스포츠에서 중국 국적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 만리장성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 농구의 야오밍, 배구의 주팅, 쇼트트랙의 판커신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막내 구단인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에서 새로운 만리장성이 탄생할 조짐이 보인다. 2024 KOVO(한국배구연맹) 여자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선발한 미들 블로커 장 위가 그 주인공이다. 신장 197cm, 스탠딩 리치(서서 손을 뻗었을 때 높이) 254cm로 확실한 높이 강점을 지닌 장 위는 지난달 2일 입국 후 선수단에 합류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장소연 감독은 지난 18~22일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 타마가와 아레나에서 NEC 레드 로켓츠와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장 위의 경기력을 집중 점검했다.

장 위는 NEC와 세 차례 연습경기에서 9세트를 모두 소화하며 공격으로 20점, 블로킹으로 4점, 서브로 1점을 생산하는 등 총 25득점을 올리면서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박사랑과 이원정, 박수빈 등 세터진을 고루 시험했음에도 다양한 공격 방식을 구사하며 확실한 기량을 선보이는 모습이었다.

장소연 감독은 물론 연습경기 상대인 NEC까지 장 위에게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장 감독은 전지훈련을 마치면서 장 위에 대해 "적응을 잘했고, 충분히 팀에 녹아들었다"고 호평했다. NEC 부주장이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 일본 배구 국가대표팀 출신인 시마무라 하루요 역시 "위압감이 엄청났다. 블로킹 벽을 서면 공격할 때 팬히 주춤하거나 스파이크를 피해서 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쿼터와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큰 V-리그인만큼 페퍼저축은행으로서는 탈쫄찌 도전에 큰 원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이었다. 바르바라 자비치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면 더욱 견고한 전력을 갖출 전망이다. 팬들도 곧 장 위의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30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개최하고, 다음 달 29일에는 경남 통영에서 2024 KOVO컵 프로배구대회가 막을 올린다. 장 위가 팬들에게도 만리장성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